

조선시대 문집 편찬의 역사적 특징과 문집 체제

심 경 호 *

1. 머리말: 평양 문사의 예를 통해 본 한국문집 간행의 실상
2. 한국 문집 정리의 현황
3. 문집의 自編 · 重刊 · 再刊이 지닌 역사문화적 의의
4. 한국문집의 편집체제
5. 한국 문집의 특질: 完整性 지향과 의도적 削節
6. 한국 문집의 학적 연구를 위한 제언: 결론을 대신하여

1. 머리말: 평양 문사의 예를 통해 본 한국문집 간행의 실상

서주(평안도)의 호걸 李時恒(1672~1736)은 金景瑞의 전기 『金將軍遺事』를 집필한 인물이다. 본관은 遂安, 자는 士常, 호는 和隱 · 晚隱이다. 화은이라는 호는 고향 평양 和浦의 지명에서 따왔다. 만년에는 화포 水仙舫 별서의 당을 保晚堂이라 하고 호를 만은이라 했다. 선영은 雲山郡에 있었다. 6대조 李信全이 성종 때 西北 徒民 때 작은 죄목으로 관서 운산군에 編管 된 이후 자손들이 그곳에서 살았다. 부친 李廷翰은 누차 과거에 낙방했다.

이시항은 約齋 柳尙運(1636~1707)의 도움으로 학업을 하여, 1700년(숙종 26)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했으나, 과거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자가 있어 파방되고, 이듬해 다시 설치된 과거에서 급제했다. 사류변려체에 능해 1727년(영조 3) 사

*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은사겸진주사 沈壽賢의 종사관으로 청나라에 갔다 왔다. 죽은 뒤 운산 선영으로
반장되었고, 다음 해 1737년(영조 13) 아내 숙인 김씨가 노비를 팔아 문집 『화
은집』을 간행했다. 이때 김씨는 남편의 제자 張生을 보내어 李德壽의 서문(戊午
四月序)을 받아 문집의 권두에 실었다.¹⁾ 또한 김씨는 남편의 묘지명을 역시 남
편의 문도를 시켜 李宗城에게 청해 받았다.²⁾ 1738년(영조 14) 『김장군유사』를
간행한 것도 숙인 김씨였을 것이다. 이시항의 발신 과정과 문학적 성취에 대해
서는 이덕수의 「화은집서」에 상세하다.³⁾

「刊記」는 문집 간역의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혀 두었다.

草藁散佚，文之失尤多。存者辭賦二十餘首，詩三千百餘首，文二百餘首。選者凡賦四首，
詩四百二十七首，文八十三首，爲二百八十八板。上之十三年丁巳季冬入刊，翌年夏訖工。
又有『金將軍遺事』，同刊爲別集。又有『西京志』·『關西通志』等篇，藏于家。

1) 李德壽, 『西堂私載』 卷3, 序 「和隱集序」.

2) 李宗城, 『梧川先生集』 卷11, 墓誌銘 「兵曹正郎李君墓誌銘并序」 “君姓李氏，諱時恒，字士常，
自號和隱，遂安人。遠祖侍中連松顯于麗，遂安人至今祭之社。入本朝，世襲冠冕。韓山郡守植
根生信企，謫雲山，家焉。君七代祖也。曾祖啓達，別檢。祖東義，贈工曹佐郎。考廷翰，贈司
憲府持平。並以孝義有馳典。妣原州邊氏，僉樞晉賢女。君以顯宗王子生，丙子成進士。己卯，闈
增廣文科，榜中有行賂竊科者，事覺罷榜。庚寅復其科，分隸成均館，序陞典籍·直講。義禁府都
事·禮兵曹佐郎·正郎，兼春秋館記事·編修官。出爲泰川縣監·魚川察訪·德川郡守。間差慶尚道
黃腸木敬差官，以陳奏使別從事官赴燕。丙辰，卒于平壤和浦別業，歸葬雲山先兆枕乙之原。”

3) 李德壽, 『西堂私載』 卷3, 序 「和隱集序」 “雲陽距京都千有餘里，在關西最爲窮僻而地近邊，
異時人士，以弓馬武力相尚，罕有業詩書者。李君士常始自奮蓬蘽下，南遊漢師，與其文人藝士，
相磨勵爲詩文。既連取大小科，而不以是自足，益浸淫肆力，其嗜書如屈到之芟·子反之飲，非
寢與食不捨也。於文，於詩，於辭賦，於駢儼，投之所向，無不精能。不爲叫噭激詭之辭，而務平
穩典實，如布帛菽粟之適於世用。其作超然臺六偉文，及龍溪書院延額序，文苑諸公皆加歎賞，
至比之益州夫子碑（王勃 作：毘沙門），其才斯亦奇矣。然當路者不喜引用西土，故君登第後官
不過郎署州縣而已。不能以徑寸之管草天誥而掌國詞命，唯嘗以別從事赴燕，而亦不能展其才，
識者至今恨焉。君沒後其配金淑人哀君遺稿爲四編，斥賣臧穫，謀所以災木，而因張生受訓求
弁卷之文於余。余少而識君，又同登丙子司馬，又嘗同爲郎於騎省。其後仕出入異路，不相見者
久。及余自燕還則君已逝矣。行過西京，愴然有夕陽聞笛之感。旣又心賢淑人之爲，遂不辭而爲之。
始柳約齋相公接節關西，君以童子謁見於嘉平館，姿貌玉雪，出語驚人，柳公大奇愛，遂携
以歸，使與諸子同筆研。君之能久留洛中，得專其業，繄柳公是賴，至今西土之喜談君美者，
無不并稱柳公云。君諱時恒，士常其字也。戊午四月，全義李德壽序。”

『關西辨誣疏』에서 드러나듯, 이시항은 평양인으로서 자부심이 강하고 국가행정의 평양 차별에 분개했다. 그는 평양 지역의 문인들과 文字飲의 모임을 결성했으며, 자신의 문학적 자존감을 특히 사류변려체 제작 능력에서 확인했다. 심지어 「遂安龍溪書院延額錄序」, 「魚川四絕亭序」, 「浮碧樓文字飲序」 등 序體 문장도 변려문으로 지었다.

사류변려체가 중국과의 외교에서 기능하는 것은 表箋의 제작 때이다. 하지만 청나라는 표전의 서식을 정해주었으므로, 조선전기에 명나라에 보내는 표전을 매년 제작해야 하는 것과는 문학예술의 환경이 달라져 있었다. 다만, 청나라는 매 황제가 등극한 뒤에 표전의 서식을 개변했으므로 표전 제작의 능력이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서 불필요하게 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표전을 짓기 위한 사류변려체의 제작 능력이 조선전기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시항은 사류변려체를 자신의 특장으로 자부했다.

참고로 『화은집』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和隱集序

和隱集刊記

和隱集卷之一

辭賦: 「次歸去來辭」, 「夢晦賦」, 「次李習之感知己賦」, 「西京賦」

詩

和隱集卷之二, 卷之三

詩

和隱集卷之四

跋: 「請修西路中嶺關防疏」, 「關西辨誣疏」

儻文: 「箕城超然臺上樑文」, 「遂安龍溪書院延額錄序」, 「保晚堂上樑文」, 「魚川四絕亭序」, 「浮碧樓文字飲序」

和隱集卷之五

序: 「送李按使序」, 「魚川勸武契序」, 「魚川驛勸學契序」, 「箕城九老會序」, 「和浦文字飲序」, 「先考恩贈題詠帖序」, 「亦樂齋學規序」

記: 「日影池記」

題跋: 「觀復齋書帖後跋」, 「約齋詞翰帖後跋」, 「約齋先生墨蹟帖後跋」, 「玉壺冰書帖後跋」, 「玉壺冰後跋」, 「事文類聚粧纊跋」

說: 「國祠嶺形便說」

雜錄: 「箕城古順和山水錄」, 「記聞錄」, 「燕行見聞錄」

和隱集卷之六

書：「上崔昆侖書」，「與呂載叔書」，「上趙寤齋」，「上宋參判書」，「上趙尚書書」，「答白康翊鴻舉書」，「與金生彥喆書」

祭文

和隱集卷之七

行狀：「先府君家狀」，「悔軒楊公(德祿)行狀」，「孟山縣監金公(志雄)行狀」，「松坡尹公(居衡)行狀」

和隱集卷之八

碑碣表：「平壤發盧河通濟橋碑銘」，「有明朝鮮國箕城大聖山廣法寺事蹟碑銘」⁴⁾，「監察趙公墓碣銘」，「岳君金公墓床石小記」，「生員趙公墓碣銘」，「藝文館直提學金公墓碣銘」，「豐川府使金公墓銘」，「高祖考主簿府君墓表」，「曾祖考將仕郎水庫別檢府君墓表」，「外王考僉知中樞府事邊公墓表」

和隱集附錄

「通訓大夫行兵曹正郎兼春秋館記注官李公行狀」[楊日榮]

「通訓大夫行兵曹正郎兼春秋館記事官李公墓碣銘并序」[李宗城]

이 사실을 소개하는 것은, 조선후기에는 문집 간행을 不朽의 사업으로 인식하여, 향반 문인도 후사자들이 고인의 문집을 반드시 간행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환기하고자 해서다. 문집 4~5권 분량의 간역에 노비의 몸값이 들었고 4~5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도 주의를 끈다.

2. 한국 문집 정리의 현황

문집은 한 개인의 단편 저술들을 集成한 것이므로, 한 개인의 삶과 사유양식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시대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문집은 개인의 사상과 행적, 문학세계를 이해하는 데 기본 자료일 뿐 아니라 한 시대의 정치, 문학, 사상을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한국의 문집으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崔致遠의 『桂苑筆耕集』이다.

4) 李時恒, 『和隱集』 卷8, 「有明朝鮮國箕城大聖山廣法寺事蹟碑銘」 “昔者東峰太師西遊箕國, 偏愛此洞山水, 久住此寺。時少尹金永濡, 判官朴哲孫, 其友也。携酒餉東峰, 東峰作詩謝之。其詩尚留揭空門。”

최치원은 18세 때인 874년 당나라 빈공과에 급제하고 20세 때 漢水縣尉가 되었다가, 28세(884년) 때 당나라僖宗의 사신 자격으로 귀국길에 올라 이듬해 현강왕 11년(885) 봄에 신라로 돌아왔다. 886년 정월, 최치원은 『계원필경집』 및 『中山覆實集』, 그리고 근체시 100여 수 등 시문집 28권을 올렸다. 이때 최치원은 「桂苑筆耕序」에서 ‘雜詩賦 및 表奏集 28권’을 올린다고 말하고 그 구체적인 목록을 제출하였다. 『계원필경집』 및 『중산복궤집』, 그리고 근체시 100여 수 등 시문집 28권은 成冊되어 있어서 單行될 수 있는 여건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니, 그들은 곧 최치원 자신의 自編稿였을 것이다. 이 가운데 『계원필경집』 20권만 현전한다.⁵⁾ 최치원의 문집은 적어도 고려 전기까지는 전하였을 듯하다. 고려 전기의 편찬물을 계승하였다고 추정되는 『十抄詩』에 『계원필경집』 미수록의 6수가 존재한다는 점이 그 방증이 될 수 있다. 『계원필경집』도 고려판본과 조선전기 覆高麗刻本은 현전하지 않고,⁶⁾ 조선후기에 나온 整理字本이⁷⁾ 1834년(순조 34)

5) 『桂苑筆耕集』의 주요 판본은 다음과 같다. 對馬宗家本 『桂苑筆耕集』(顯宗 8 年前後 大邱刊行), 1834년 간행 整理字體活字本(1972, 成均館大學校大東文化研究院 影印), 四部叢刊初編 集部所收本(上海涵芬樓借印無錫孫氏藏高麗舊刊本), 大正 7 年(1918)刊行 伊上齋本(1993, 景仁文化社 韓國歷代文集叢書 第1卷, 『孤雲先生文集』 1). 對校本으로 『桂苑筆耕集校注』 上·下(2007.8, 中華書局)가 있다. 대구 간본에 대해서는 藤本幸夫, 2006 『日本現存朝鮮本研究 集部』, 京都大學學術出版會 참조. 판본 조사는 柳鐸一, 1977 「桂苑筆耕集의 文獻學的 照明」『孤雲의 思想과 文學』, 新知書院, 335-393면; 濱田耕策, 2009 「『桂苑筆耕集』の刊行と日本所在本」『〈『桂苑筆耕集』 번역 기념 국제학술대회〉 孤雲 崔致遠의 著述과 思惟』(한국고전번역원 2009년도 하반기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등을 참조. 『계원필경집』에 대해서는 自序의 관명으로 볼 때 당나라僖宗에게 현상할 의도로 엮은 것이라는 설도 있다. 『新唐書』 卷60, 藝文志 4에 『계원필경집』이 저록된 것도 그것이 중국에서 유통된 증거라고 보기도 한다. 濱田耕策, 위의 논문 참조.

6) 『淸芬室書目』 권2에 중종 이전 覆高麗刻本 『계원필경집』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서수에 최치원 서문이 있다. 전 20권이고, 2책이다. 李仁榮, 1968 『淸芬室書目』, 寶蓮閣.

7) 1926년 崔國述은 『東文選』에서 輯佚하여 『孤雲先生文集』을 엮었다. 그 뒤 1972년에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所(현 대동문화연구원)가 『崔文昌侯全集』을 간행할 때 『孤雲先生續集』을 編集하면서 輯佚을 하였는데 「名賢十抄詩」에 근거해서 시 6수를 첨가하였다. 그런데 『東文選』 권12의 시로부터 『孤雲先生文集』既收의 「暮春卽事和顧雲友使」(『十抄詩』·『夾注名賢十抄詩』에는 「和顧雲支使暮春卽事」)를 넣으면서 도리어 「和顧雲侍御重陽詠菊」를 빼뜨렸다. 高橋亨의 「崔致遠 夾注十抄詩 一名 名賢十抄」의 잘못을 딱습한 것이라고 한다. 芳村弘道, 2004 「朝鮮本『夾注名賢十抄詩』の基礎的考察」 『學林』 39, 中國藝文研究會, 44-99면.

이후 인출본이 널리 유통되고 있다. 『계원필경집』의 초간과 복간, 재간은 조선 유학사상 최치원의 위상 상승과 깊은 관련이 있다.

고려에 들어와 李仁老는 林椿의 사후에 임춘의 문집 『西河先生集』을 엮었다. 그 후 본격적인 문집의 체제를 갖춘 李奎報의 『東國李相國集』이 나왔다. 17세기 이후 조선에서는 가문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遺集을 간행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張維(1587~1638)는 金玄成의 문집에 대한 서문인 「南窓雜稿序」에서 무분별하게 유집을 간행해내는 세태를 비판하였다.⁸⁾

고려와 조선시대의 문집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을 기준으로 볼 때 정 350집(663종), 속 94집을 포함하여, 총 1,079종 1,078인(최치원 2종)에 이른다. 정편의 경우 원서로는 15,018권 4,917책 381,679면에 이른다.⁹⁾

문집의 서명은 저자의 호(아호, 별호, 당호, 현호, 실호)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후인들은 조상의 문집을 낼 때 되도록 호를 서명에 사용하려고 했다. 안동 선비 李楨國의 문집은 『尤園集』이다. 이정국은 평소 호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사후 발견한 원고에 ‘우원’이라 적힌 것이 있어 문집 이름을 우원이라 한다고 했다.¹⁰⁾ 호가 아니라도 주위 사람들이 부른 호칭을 호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 李命培는 호가 없으나 함주(함안) 사람들이 茅溪處士나 鮑德山處士라 불렀는데,¹¹⁾ 문집의 서명은 『모계집』이다. 포덕산은 함안의 산 이름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편 한국문집총간 정편과 속편의 1,199명(최치원 2회) 1,200종의 문집을 보면 그 가운데 서명에 호를 사용하지 않은 예는 11종에 불과하다.¹²⁾

8) 張維, 『谿谷集』 권7, 序 16首「南窓雜稿序」 “我東俗椎鮮好事，文人述作，罕有銕行於世者。近歲稍稱右文操觚家，競出遺集，可謂盛矣。然徐而察之，未必皆其人也。蓋其家世隆顯，胤胄趾美，則雖折楊皇萼，亦可以混響韶謳，咄嗟之頃，能令木災而紙貴，即窮塗冷族，雖懷雲夢之富，蘊隨和之珍，沒世之後，旋就湮滅。是以孝標興秋草之感，子駿有醬瓿之譏，雖關世情，理亦宜爾。”

9) 한국고전번역원, 2010 『한국문집총간편람』, 한국고전번역원.

10) 『尤園先生文集』 卷8, 附錄 家狀【李光一】 “平日無齋號，先輩多勸之不應。下世後十餘年，於箱篋中得手書，答人簽面有尤園二字。門下諸議皆曰：此府君一生反省實用工處，不可以他求，遂稱之曰尤園。”

11) 『茅溪先生文集』 卷7, 附錄 行狀【柳台佐】 “謙退過人，深自韬晦。或勸以名堂自號，不爲也。鄉黨稱之曰茅溪處士，又曰鮑德山處士。”

12) 심경호, 2015(예정) 『호』, 고려대학교 출판부.

『계원필경집』 이외의 이 예외적 서명들은 字, 관직명, 시호를 사용했다. 성삼문의 『成謹甫集』, 尹淮의 『淸卿集』은 성씨와 자, 혹은 자만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이다. 朴泰漢(1664~1698)의 『朴正字遺稿』, 鄭克淳의 『庶尹公遺稿』, 李匡呂의 『李參奉集』, 李穆의 『李評事集』은 직명을 이용한 예이다. 삼학사의 한 사람이었던 吳達濟의 문집은 시호를 이용해서 『忠烈公遺稿』라 했다. 정난종의 아들 鄭光弼의 문집은 『鄭文翼公遺稿』, 이인좌 난에 청주성이 함락될 때 적에게 굴하지 않아 죽은 南延年的 문집은 『南忠壯公詩稿』이다. 인현왕후의 아버지 閔維重은 호가 屯村이지만 문집의 서명은 『文貞公遺稿』이다. 특이한 예로는 朴彭年의 『朴先生遺稿』와 宋時烈의 『宋子大全』이 있다. 박팽년의 경우 ‘선생’을 칭하여 그 절의를 존중했다. 송시열의 경우 후생들이 선생의 자호를 함부로 부를 수 없고, 학덕을 존중하여 ‘송자’라고 부른 것이다.

3. 문집의 自編 · 重刊 · 再刊¹³⁾이 지닌 역사문화적 의의

한국의 현존 最古의 문집인 『계원필경집』에서부터 문인-지식인이 자신이 저술을 自編하는 관습이 형성되어 있었다. 자편은 저자가 일생활동의 精華를 불후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데, 自編稿는 때로는 溫卷(行卷)과 같은 기능을 하고 同類同好의 결속을 다지는 기능도 하였다. 이규보와 崔灝는 자편고를 생전에 간행하기도 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문집은 자편고를 초간하더라도 이후 저술을 망라하여 重刊하는 일이 많았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사대부의 문집은 시문을 망라하고 관련 문헌을 초록하여 완비하려는 경향이 더욱 짙어졌다. 또한 국가에서 恩典을 내려 문집을 완비하여 간행하도록 명하기도 하였다. 고려 말 문헌 가운데, 주자학의 이념에 따라 道脈의 위상을 차지한 인물들의 문집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再刊 · 續刊되었다. 곧, 李齊賢의 『櫟翁稗說』 · 『益齋亂藁』, 李穀의 『稼亭集』, 李崇仁의 『陶隱集』, 韓修의 『柳菴集』, 鄭夢周의 『圃隱集』, 李崇仁의 『陶隱集』, 李穡의 『牧隱集』 등이 그것이다.¹³⁾

13) 심경호, 2012(증보) 『한국한문기초학사』, 태학사.

鄭道傳[1342(?)~1398]의 경우, 자편고에 기초한 저자 자신의 간행, 아들과 후손에 의한 遺文의 수집과 중간, 국가의 은전에 의한 자료 망라와 改刊 등 여러 단계의 출판이 이루어졌다.

1) 自編

정도전은 생전에 스스로의 시문을 자편하여 지인으로부터 서문을 받았다. 또한 중국의 명사에게 서문을 청함으로써 자신의 문집을 粉飾하였다. 서문을 작성한 周倬, 張溥, 高遜志는 명나라 문인이다. 高遜志는 직접적인 교류가 없이, 정몽주와 이승인을 통해 서문을 청하였다. 이들 서문은 재간본 『삼봉집』 권14, 부록 「諸賢敍述」에 저록되어 있다.

2) 禿王 11년에서 13년 사이의 초간 혹은 초간 준비

우왕 11~13년에 처음 간행하려고 할 때 작성했을 권근의 서문이 현행 대구본의 卷首에 실려 있다. 이때 시문과 함께 「學者指南圖」·「八陣三十六變圖譜」·「太乙[一]七十二局圖」 등을 수록했으리라 추정된다. 권근의 「三峯集序」는 (ㄱ)정도전의 위상을 權溥, 李齊賢, 李穀·李仁復, 白文寶, 李穡, 鄭夢周·李崇仁·鄭道傳·朴尙衷·尹紹宗에 이르는 道統 속에 위치시키고 (ㄴ)정도전이 關異端에 앞장섰으며, (ㄷ)정도전의 시문이 衆體를 구비하고 (ㄹ)經國과 華國의 도구임을 역설하였다.¹⁴⁾ 이 글은 이후 정도전의 문집 『삼봉집』을 간행하는 취지와 유포의 정당성

14) 權近, 『三峰集』「三峰集序」, “(ㄱ)吾家文正公[溥], 始以朱子四書, 立[按立當作建, 避麗祖諱]白刊行, 勸進後學, 其甥益齋李文忠公師事親炙, 以倡義理之學, 爲世儒宗, 穀亭·樵隱[李仁復]諸公, 從而興起, 濬庵白公[文寶], 關異端尤力焉, 吾座主牧隱先生, 早承家訓, 得齒辟廬, 以極正大精微之學, 既還, 儒士皆宗之, 若圃隱鄭公·陶隱李公·三峯鄭公·潘陽朴公尙衷·茂松尹公紹宗, 皆其升堂者也, 三峯與圃隱·陶隱, 尤相親善, 講論切磋, 益有所得, (ㄴ)常以訓後進關異端為已任, 其講『詩』·『書』, 能以近言形容至理, 學者一聞即曉其義, 其關異端, 能通其書, 先說其詳, 乃斥其非, 聽者皆服, 是以執經從遊者, 墱隘門巷, 詧從學而登顯仕者, 比肩而立, 雖武夫俗士, 聞其講說, 聲聳不厭, 浮屠之徒, 亦有從而化者焉, (ㄷ)至於禮樂制度陰陽兵曆, 麻不精曉, 祖八陣而成三十六變之譜, 約太乙而作七十二局之圖, 能簡而盡, 世之名將術士皆善之, 然此皆先生之餘事也, 先生節義甚高, 學術最精, 詈以直言忤宰相, 流南方者十年, 而其志不變, 功利之徒, 異端之輩, 群欺衆詆, 而其守益堅, 先生可謂信道篤而不惑者也, (중략) (ㄹ)嗚呼! 先生之文, 皆有補於名教, 非空言比也, 是其與道竝

을 최초로 확인한 것이자, 조선시대 문집의 형성과 간행 및 유포의 정당성을 예시적으로 명기한 것이기도 하다.

3) 洪武 初本

1397년(조선 태조 6, 明 洪武 30) 정도전의 아들 鄭津이 부친의 시문 가운데서 『錦南雜詠』과 『錦南雜題』·『奉使錄』 등을 합하여 2권의 『삼봉집』을 간행하였다. 정진의 跋(홍무 30년 9월 일, 男 資憲大夫 領原州牧使事 兼管內勸農管學 兵馬節制使 津謹 跋)에 의하면, 부친은 시문을 기초하지 않고 입으로 읊은 것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베끼게 하였는데 원고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받아놓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이 侍側하면서 기록한 것과 타인이 소장한 원고를 모아서 『삼봉집』을 내게 되었다고 밝혔다.¹⁵⁾ 홍무 초본은 성암고서박물관에 진권이 전하는데, 成石璘이 정선하고 권근이 批를 붙였다. 批는 중간본에서는 제외되지만 정조 때의 재간본에서는 다시 각입되었다.

4) 重刊

1465년(세조 11) 경상도 관찰사로 있던 정도전의 증손 鄭文炯(1427~1501)이 홍무 초본에 『經濟文鑑』·『朝鮮經國典』·『佛氏雜譜』(佛氏譜說)·「心氣理」·「心問天答」을 합하여 6책으로 편성하고 안동부에서 간행하였다. 『경제문감』과 『조선경국전』의 서문은 鄭摶이 지었으나, 『불씨잡변』·『심기리편』·『심문천답』·『경제문감별집』 등의 서문은 권근이 지은 것이 있었다. 중간본 『삼봉집』에는 申叔舟의 「後序」가 있다. 신숙주의 「후서」는 대구본 卷首에 그대로 실려 있는데, 신숙주는 정도전이 保終하지 못한 사실을 애석해 하면서도 그가 王佐之才로서의

流後世而不朽無疑矣。雖生下國，不得施其文於皇朝盛世之典，嘗奉使朝于京師，浮遼海過齊魯，詩文之作，皆爲中國文士所嘉賞，是能以文鳴於一方，頌揚東漸之化，俾東人歌於萬世，與聖代治道之盛，同垂罔極，亦無疑也（享辟）。”

15) 鄭津, 『三峰集』附錄, 「三峯集跋」“家君作詩文，率不起草，口占而使人書之，書者或不能及。既又自以不滿其意而不收其稿。是以著述雖多，存者無幾。津當侍側時，則得錄之，或幸爲人所藏不逸者有之。今所刊詩文若干卷是也。觀者因其所有而識其議論製作之體，則其他亦可以此而推之矣。洪武三十年九月日，男資憲大夫領原州牧使事兼管內勸農管學兵馬節制使津謹跋。”

역할을 수행한 사실을 칭송하였다.¹⁶⁾

한편 『三峯先生佛氏雜辯』은 1456년(세조 2) 경북 예천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되었으나, 1465년(세조 11) 중간본에 『佛氏雜辯』이란 제목으로 합편되었다.¹⁷⁾ 『불씨잡변』 초간 단행본인 『삼봉선생불씨잡변』은 베를리대학교 淺見文庫에 전한다. 『불씨잡변』은 정문형이 『삼봉집』(삼봉선생집)을 간행할 때는 발문에서 『佛氏辯說』이라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중간본에는 『佛氏雜辯』이란 제목으로 합편되었고, 1487년 추각본에서도 『佛氏雜辯』으로 되어 있다.¹⁸⁾

정도전은 1398년(태조 7) 여름 ‘佛氏雜辯’을 완성하고 권근의 서문까지 받아두었다. 그러나 수개월 후 살해되면서 간행되지는 못했다. 1438년(세종 20) 정도전의 죽손 韓奕이 성균관 동료 尹起畎에게 그 원고를 넘겨주었고, 윤기견은 1456년 5월 경북 體泉(古號 襄陽)의 수령으로 있으면서 30여 자를 교정해서 간행하였다. 윤기견은 관직이 知體泉郡事이고, 조력자의 한 사람인 李煥도 體泉 儒學敎導이다. 윤기견은 연산군의 외조이자 廢妃 尹氏의 아버지이다. 그는 조선 성리학의 중심지에서 『불씨잡변』을 간행함으로써 정도전의 도통 내 이상을 현양하려고 한 듯하다.¹⁹⁾

16) 申叔舟, 『三峰集』「三峰集後序」“嘗觀古之英雄豪傑有建功於世者，多不能保其終，是或滿損盈虧，有以自招，亦或關於運數，有不能自脫者。然建大功者，必享大福，苟不及其身，必於其後，有施必獲，固天道也。三峯先生，天資磊落魁偉，實王佐之才。前朝之季，國祚將終，東方糜沸，民墜塗炭，我太祖悶時之艱，東征西討，芟夷大難，先生手搏日穀，廓清區宇，以拯我東方億兆蒼生。及開國之初，凡大規模，皆先生所贊定，當時英雄豪傑，並起雲從，而無與先生比者。雖終有蹉跌，功過亦足相掩矣。其亦關於運數如古豪傑之不能脫者歟（后략）。”

17) 『불씨잡변』은 본편 15편과 「前代事實」 4편 등 모두 19편으로 불교의 교리를 비판한 것이다. 『불씨잡변』의 본편은 질의문답 형식을 섞어 불교 교리의 그릇됨을 밝히려 한 것이고, 나머지 4편은 偉德秀 『大學衍義』를抄출한 것이었다. 「闡異端之辯」은 추후에 보충한 텃인지 「前代事實」 끝에 편성되어 있다. 서, 본문, 저자의 識 그리고 발문의 순으로 되어 있다. 서문은 권근이 지었다. 서문을 쓴 권근은 『불씨잡변』 20편이라고 하였으나 『불씨잡변』 권말에 있는 정도전의 識에는 “여가를 내어 『불씨잡변』 15편과 「전대사실」 4편을 지었다.”라고 하였다. 권근이 20편이라 한 것은 「전대사실」과 정도전의 識를 합산한 결과인 듯하다.

18) 1465년 중간본(혹은 1487년 속간본) 『삼봉선생집』은 국립중앙도서관과 일본 蓬左文庫에 전하며, 그 권7에 『불씨잡변』이 들어 있다. 한편 훗날 1791년 간행 『삼봉집』의 권9에 편입된 『불씨잡변』은 ‘佛氏雜辯’으로 되어 있다. 이기훈, 2006 『불씨잡변』, 계명대학교출판부: 오용섭, 2008 『돌려받지 못한 책들: 베를리대학의 우리고서』, 경인문화사.

5) 續刊과 重刊續刊合本

1486년(성종 17) 겨울 강원도 관찰사 정문형은 지방 주군과 동료들로부터 누락된 시문과 서책을 다시 수집하여 詩賦 1백여 수와 『경제문감별집』을 續刊하였다. 이후 1487년(성종 18) 강원도 추각 판목을 앞서의 안동부 중간본 판목과 합쳐 전부 8책으로 만들었다. 『경제문감별집』과 더 모은 시문을 이때 追刻하였다. 8책 중 2책(『경제문감』 및 『경제문감별집』)은 지금 서울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1487년 3월 下澣 작성의 정문형 서문은 정도전의 학문이 고려 말 성리학의 도통을 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시문의 호한함과 경세문장으로서의 가치를 재차 확인하였다.²⁰⁾

6) 改刊

정조는 정도전의 ‘문장’과 ‘經義’에 주목하여, 경상도 관찰사에게 명하여 『삼봉집』을 베껴 오게 했다. 『日得錄』에 원임 직각 李秉模가 을사년(1785년)의 사실로 기록해두었다.²¹⁾ 정조의 필사 명령은 후손들이나 조정 관료들로 하여금 『삼봉집』의 재간을 서두르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실제로 정조는 『삼봉집』의 재편을 규장각에 명하여, 대구에서 개간되었다.²²⁾ 이 책의 범례에는 “當寧辛亥(1791년,

19) 1576년 간행의 『攷事撮要』에도 예천에 『불씨잡변』 판목이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책판은 1585년까지는 예천에서 그대로 보존되었으나, 1593년(선조 26) 5월 왜적들의 약탈 때 소실되었다.

20) 鄭文炳, 『三峰集』 附錄, 「重刊三峯集跋」 “三峯詩文集, 『經濟文鑑』, 『經國典』, 『佛氏辨』, 說心氣理三篇, 我曾祖奉化伯公所著也。公高麗壬寅科進士, 少有大志, 力學自強。早遊牧隱李先生之門, 一時豪傑如圃隱鄭先生·陶隱李先生·桐軒尹先生·貞齋朴先生·浩亭河先生·陽村權先生·惕若齋金先生, 師友講論, 所聞益廣, 所見益正。發而爲言語文章者, 汪洋渾厚, 博大奇偉, 有古作者之風。諸先生咸推讓之。麗運既衰, 天命有歸, 推戴我太祖, 翱運開國, 經編贊襄, 立經陳紀, 制禮作樂, 皆出公之手。『經國典』乃其大略也。如詩文雜著, 特緒餘耳。若夫『佛氏辨說』·心氣理, 則發揮性情, 摳斥虛誕, 以明吾道異端之偏正, 眞聖門之藩籬, 而其有功於名教大矣。經濟文鑑則上自唐虞下至宋元, 逮及高麗, 編列其相業君道之得失可法可戒者, 又採聖賢之格言, 以附其後, 實可謂爲君爲臣之龜鑑, 而有關於治道者至矣。非如諸家集只詩文工拙之如何耳。諸篇舊有板本, 散落不完(후략).”

21) 『弘齋全書』 卷171, 日得錄11 人物1. 원임 직각 李秉模의 을사년 기록.

22) 五臺山·鼎足山·太白山·弘文館 등에 수장되었는데, 정족산 소장본과 태백산 소장본이

정조 15) 命內閣購公奎遺集將梓行” 운운의 구절이 있어, 규장각이 그 편집과 간행에 간여했으리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재간할 당시 서문이나跋문은 별도로 작성되지 않았다. 재간의 경위와 관련된 대구본 범례 제1조는 아래와 같다.

一. 是集始刊於洪武丁丑, 重刊於成化丁未。公之曾孫觀察使文炳跋其卷尾曰: “舊有板本, 散落不完。”在文炳時已如此, 今經屢百載, 宜其不傳也。當寧辛亥, 命內閣購公遺集將梓行, 編袞殘缺, 殆不可讀。攷其凡例, 則詩以「雜詠」·「錦南雜詠」·「奉使錄」分類, 文以「雜題」·「錦南雜題」爲目。然敍次多錯, 類例不明。故別立標題, 詩以五七言, 文以疏箋書等目爲例, 各以類從, 竝攷年紀, 先後無紊, 其不可攷者闕之。舊本類例, 不可全削, 故詩文篇題下, 書以下幾首某編, 以存本來面目, 文鑑以下俱是完書, 故不爲移動一字, 但刪其疊錄,[如「佛氏乞食辨」, 疊錄於「雜題」中, 故刪正。]

徐有榘의 『鏤板考』에 보면 그 권6에 『三峯集』 14권의 책판에 대한 서술이 있어, 『삼봉집』의 재간은 신해년(1791년)이 아니라 임자년(1792년)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²³⁾

李朝判都許議事奉化伯鄭道傳撰。道傳佐太祖開國，立經創制，皆出其手。權近序稱其詩文典雅質淡。當寧壬子，奉教重刊。

大丘龍淵寺藏。印紙十三牒六張。

재간본은 정문형 중판본의抄本을 저본으로 하고, 구본에 누락된 陣法과 시문들을 수록하고, 정도전의 「事實」을 보완하였으며, 구본의 누락된 글자나 자귀의訛謬를 보충 또는 교정하였다. 또한 기사의 중첩된 부분을 깎아내고, 批와 註를 첨가하고, 편차를 다시 분류하여 모두 14권 7책으로 만들었다. 『불씨잡변』은 전체 14권 중 권9에 합편하면서, 「잡변」의 「辯」을 거의 모두 「辨」으로 바꾸었다.²⁴⁾

재간본의 간행은 이후 정도전의 복권에 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고종 2년 (1865) 9월 10일(임신)에 이르러 경복궁의 전각들이 차례로 완성되자 大王大妃

가장 선본이며 현재 서울대학교와 미국 버클리대학 아시아문고 등에 소장되어 있다.

23) 徐有榘(洪命熹 校訂), 1941(昭和 16) 『鏤板考』, 京城: 大同出版社; 鄭亨愚·尹炳泰 編著, 1995.2~1995.12 『韓國의 册板目錄』(上·下, 補遺·索引), 保景文化社.

24) 또 다른 번각본은 전 14권 중 권5에 편성해 두었다고 한다.

는 정도전이 전각의 이름을 정하고 송축한 문구를 생각하고 느낌이 있어서 정도전의 勳封을 특별히 회복시키고 시호를 내리게 하였으며, 奉祀孫을 健元陵參奉으로 의망하여 들이도록 하였다.²⁵⁾ 고종 8년(1871) 3월 16일(병오), 정도전은 ‘文憲’의 시호를 추증 받았다.

4. 한국문집의 편집체제

고려와 조선 시대의 문집은 편집 체계 면에서 일정한 원칙을 준용하였다. 주류를 이룬 것은 詩와 文을 분리하고, 시를 창작연대순, 문을 문체별로 편찬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東坡集』 등 중국 송나라의 문집 체제를 원용한 듯하다. 또한 문집은 저자의 事行을 현양하기 위하여 年譜을 붙이고 교류 인맥의 관련 시문, 후대의 평가를 정리한 附錄를 붙이는 일이 많다. 조선후기의 중인총이나 서얼총은 특장의 양식과 저술을 중심으로 문집을 편성하기도 하였으나, 역시 완비를 이상으로 여겼다.

『계원필경집』 가운데 가장 널리 통용되는 1834년(순조 34) 이후 인출 정리자본에 나타난 시문의 문체 분류를 보면, 서간체의 경우 別紙 書, 委曲, 舉牒 등을 구분하고, 도교적 행사에 사용하는 齋詞, 불교적 행사에 사용하는 願文을 분류목으로 설정하였다. 권1에서 권5까지는 高駢이 황제에게 올리는 表와 狀을 대필한 것인데, 經國文章의 이념을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권6에서 권10까지는 고관 대작들에게 주었던 代作과 自作의 別紙 94편을 실어서, 권11의 ‘書’와 구별하였다. 권11에는 「檄巢黃書」와 별도의 ‘書’들이 실려 있는데 모두 변려문이다. 다음으로 권12·13의 ‘委曲’이나 권14의 ‘舉牒’ 등은 그 이후 한문학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문체이다. 권15의 齋詞는 道教에서 사용한 문체이다.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은 1241년 8월 집정자 崔怡의 命에 의해 자편고를 기반으로 새로 편찬되고 1241년 12월 총 53권 14책으로 간행되었다. 그리고 1251년 중간본이 나왔다.²⁶⁾ 전집과 후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집은 시를 창작 연

25) 『高宗實錄』 권2, 2년(1865) 9월 10일(임신) 3번째 기사 참조.

대순으로 문을 문체별로 엮었고, 후집은 전집의 편집 방식을 준용하면서 전집에서 빠진 시문과 1237년 이후 저자 말년의 작품들을 수습하였다.

〈표〉 李奎報『東國李相國集』의 구성

	序, 年譜
	권1 古賦, 권2 古律詩, 권3 古律詩, 권4 古律詩, 권5 古律詩, 권6 古律詩, 권7 古律詩, 권8 古律詩, 권9 古律詩, 권10 古律詩, 권11 古律詩, 권12 古律詩, 권13 古律詩, 권14 古律詩, 권15 古律詩, 권16 古律詩, 권17 古律詩, 권18 古律詩
前集	권19 雜著 上樸文 口號 頌 賛 銘, 권20 雜著 韻語 語錄 傳, 권21 說 序, 권22 雜文, 권23 記, 권24 記, 권25 記, 권26 書, 권27 書, 권28 書狀 表, 권29 表, 권30 表牘狀, 권31 表, 권32 狀, 권33 教書 批答 詔書, 권34 教書 麻制 官誥, 권35 碑銘 墓誌, 권36 墓誌 誌書, 권37 哀詞 祭文
	권38 道場齋醮疏祭文, 권39 佛道疏 翰林修製, 권40 釋道疏祭祝翰林誥院并, 권41 釋道疏
	序
後集	권1 古律詩, 권2 古律詩, 권3 古律詩, 권4 古律詩, 권5 古律詩, 권6 古律詩, 권7 古律詩, 권8 古律詩, 권9 古律詩, 권10 古律詩
	권11 賛 序 記 雜識 問答, 권12 書 表 雜著 誌書 墓誌銘 跡尾
卷終	附錄
跋尾	跋

문집의 문체는 시대적 요구,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계원필경집』 권15에 실려 있는 齋詞 15수는 당나라 도교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²⁷⁾ 당나라 때 문인이 지은 청사의 예로는 吳融의 「上元青詞」가 『全唐文』 권820에 실려 있을 때이다. 최치원이 의탁한 고변은 도교를 혹신하였으므로²⁸⁾ 최치원도 고변 막부의 풍토에 따라 도교와 일정한 관계를 가졌을 것이다. 송나라 때는 청사의 인쇄가 행해졌지만, 실물은 중국에는 남아 있지 않다. 송나라 때

2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편, 1973 『高麗名賢集』 1은 조선후기 판본을 이용하였다.

27) 당나라 李肇의 『翰林志』에 보면, “太清宮과 道觀에서 薦告하는 詞文은 青藤紙에 붉은 글씨를 쓰는데 그것을 青詞라 한다[凡太清宮道觀薦告詞文, 用青藤紙朱字, 謂之青詞].”라고 나온다.

28) 『舊唐書』 卷182, 列傳132 高駢 참조.

들어와서는 胡宿의 청사 125수가 『全宋文』에 전하고, 歐陽脩의 경우, 密詞를 포함하여 51수(『구양문충공전집』 권82~88), 蘇軾의 경우 17수(『소식문집』 권44, 권62), 陸游의 경우 6수(『渭南文集』 권23), 陳德秀의 경우 139수(『西山文集』 권23, 권48~49)가 실려 있다. 한편 『동문선』 권115에도 金富軒 3수, 崔惟清 1수, 金克己 4수, 李穀 3수, 鄭誦 2수의 청사 혹은 酗禮文이 남아 있으며, 李奎報는 37수나 되는 청사가 『동국이상국집』 권38~41에 수록되어 있다. 최치원의 재사는 당나라 때 도교의 양상을 알려주는 자료이며, 송나라와 고려 때 문인들이 청사를 짓는 전통의 맥을 열어준 것이다.

조선시대의 문집은 上梁文을 독립 문체로 설정한 예가 많다.²⁹⁾ 이것은 중국의 영향도 있지만 상량식의 국가적 의례화, 향촌사회의 결속을 위한 상량식의 활용 등 내적 환경도 그 문체를 독립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송나라의 경우, 선집·총집은 상량문을 독립문체로 설정한 예가 많으나, 문집은 독립문체로 설정한 예가 오히려 적다.

송나라呂祖謙이 奉旨銓次한 『宋文鑑』 150권은 상량문을 문체의 한 부류로서 설정했다.

曰賦曰律賦曰四言古詩曰樂府歌行附雜言曰五言古詩曰七言古詩曰五言律詩曰七言律詩曰五言絕句曰六言絕句曰七言絕句曰雜體曰騷如騷者亦附曰詔曰勅曰赦文曰冊曰御禮曰批荅曰制曰誥曰奏疏曰表曰牋曰箴曰銘曰頌曰贊曰碑文曰記曰序曰論曰義曰策曰議曰說曰戒曰制策曰說書曰經義曰書曰啓曰策問曰雜著曰對問曰移文曰連珠曰琴操曰上梁文曰書判曰題跋曰樂語曰哀辭誄附曰祭文曰謚議曰行狀曰墓誌曰墓表曰神道碑銘曰傳曰露布

원나라蘇天爵이 편한 『國朝文類』 70권도 상량문을 문체의 한 부류로 설정했다.

古賦, 騷辭, 樂章, 四言詩, 五言古詩, 樂府歌行, 七言古詩, 雜言雜體, 五言律詩, 七言律詩, 五言絕句, 七言絕句, 詔赦, 册文, 制, 奏議, 表箋, 箴銘, 頌贊, 碑文, 記序, 書說, 題跋, 雜著, 策問, 啓, 上梁文, 祝文, 祭文, 哀辭, 謚議, 行狀, 墓誌銘, 墓碣, 墓表, 神道碑, 傳.

29) 심경호, 2009 「상량문의 문학성 시론」 『한문학보』 제20호; 심경호, 2015 「고려·조선시대의 상량문」(일본어) 『〈제6회 메이지대학·고려대학교 국제학술회의〉 한일 어문학과 역사학의 재검토』, 메이지대학 글로벌 프린트.

송나라 胡宿『文恭集』, 歐陽脩『文忠公集』, 王安石『臨川文集』, 朱熹『晦庵集』은 상량문의 문체를 門目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蘇軾은 「白鶴峯上梁文」을 지은 일화가 유명하지만, 『동파전집』에는 상량문을 문체의 門目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黃庭堅은 「靖武門上梁文」이 『山谷集』 外集 권10에 수록되어 있으나, 상량문의 문목을 설정하지 않았다. 陳師道는 「披雲樓上梁文」이 『後山集』 권17에 수록되어 있으나, 상량문의 문목을 설정하지 않았다. 고려 말부터는 주희 『회암집』의 문체 분류를 참고로 하게 되어, 이에 따라 상량문을 독립문체로 설정하는 경향이 더 강해졌으리라 짐작된다. 『회암집』의 문체 분류는 다음과 같다.

賦, 詞, 琴操, 詩, 詩餘, 封事, 奏劄, 講義, 議狀, 箚子, 奏狀, 申請, 辭免, 書(時事出處), *箚子, 書(問答), 書(辯答), 書(問答論事), 雜著, 序, 記, 跋, 銘, 篆, 賛, 表, 跪, 啓, 婚書, 上梁文, 祝文, 祭文, 碑, 墓表, 墓誌銘, 行狀, [行狀, 事實, 年譜, 傳, 公移]

조선 성종 9년인 1478년 徐居正·姜希孟 등 찬집관 23명은 『동문선』을 편찬해 올렸는데, 그 목록에 보면 상량문이 독립되어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剪燈新話』가 유행하였는데, 그 「水宮慶會錄」에 상량문이 들어 있어, 사대부만이 아니라 중인충과 서리충도 상량문의 형식을 공유하였다. 따라서 조선후기의 문집에는 '상량문'을 독립 문체로 설정한 예가 많다.

고려·조선의 문집은 편집체제 면에서 '시문 2대별, 시의 편년 정리, 문의 문체별 정리'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다. 단, 이 체계를 취하지 않은 예도 상당수 있는데, 그러한 예외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이를테면 金時習의 『梅月堂集』은 시에서 분류식을 채용하였다. 조정에서 김시습의 시를 시작의 모범으로 게시하기 위해 분류 방식을 채용한 것이다.

허균의 자편고 『惺所覆瓿藁』는 4부 분류를 택했다. 허균은 1611년 자신의 저술을 賦·詩·文·說의 4부로 나누고 '四部覆瓿藁'라 했다. 이것은 명나라 王世貞의 『弇州四部稿』의 제목과 체재를 모방한 것이다.³⁰⁾

許穆의 『記言』은 '類書'의 형태를 취했다. 许穆은 스스로의 시문 저술을 모아

30) 허경진, 1984 『허균 시 연구』, 평민사, 29면.

『記言』을 편찬하면서 유서의 체제를 취하기까지 하였다. 「凡例」에 보면, 그 1조 항에 이러한 말이 있다.³¹⁾

『기언』에는 原集과 續集이 있다. 上편·中편·下편·雜編·內編·외편 등은 갑인년(1674, 현종15) 이전에 지은 것으로 원집이라 하고, 續集·散稿·敍述 등은 갑인년 이후에 지은 것으로 속집이라 한다. 그 次序와 標題를 별도의 용례를 써서 유서처럼 하였다. 이는 모두 선생이 직접 편집하여 정한 것이므로 선생의 規準을 그대로 따라 간행한다.

상편: 學, 禮, 文學, 古文, 贈言, 儒林, 圖像, 鬼神

중편: 人物, 清士列傳, 族氏, 壽考, 棟宇, 田園居, 祠, 丘墓, 殆, 遺事, 犬旅, 善行, 戒懼, 記行

하편: 妖祥, 世變, 山川, 山水記, 書畫

雜편: 邊塞, 治體

내편: 經說

외편: 東事, 東事外紀, 陟州記事, 東序記言

許氏先墓碑文石誌, 許氏先墓碑文, 許氏傍親碑碣, 外家墓文遺事, 雪公編年記事, 雪翁先生墓碣陰記, 雪翁遺編序, 答問分類小序, 雪公遺編後序

속집: 四方, 禮, 學, 論事, 治道, 辭受, 文學, 政弊, 災異, 四時, 慶賀, 乞骸, 壽考, 居室, 儒林

산고속집: 詩, 妖孽, 節行, 文章, 學, 哀悼文

속집: 敍述 ○古人諸子 ○七帝世紀

습유: 賦, 詠, 辭, 詩, 疏

自序, 自序續編

별집: 詩, 疏, 疏箚, 收議, 書牘, 序, 記, 跋, 說, 銘, 頌, 祭文, 哀詞, 雜著, 記行, 丘墓文, 行狀, 遺事

記言年譜世系圖, 記言年譜, 記言年譜附錄, 記言年譜識

한편, 문집은 자편, 중편, 재간을 거치면서 완비하려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앞서 보았던 정도전의 『삼봉집』(再刊本)은 시와 문을 따로 수록하고 각각 문체별로 구분하여 두는 방식을 취하였다. 자편고에는 수록되어 있었을 圖는 후대에

31) 許穆, 『眉叟記言』「凡例」 제1조항 “記言一書, 有原集, 有續集. 上篇中篇下篇雜篇內篇外篇等篇, 甲寅以前所著, 而謂之原集者也. 續集散稿敍述等篇, 甲寅以後所著, 而謂之續集者也. 其序列標題, 別用事例若類書然者, 皆先生所自纂定者, 故一依先生成規入梓”(한국고전번역 원 번역문 참조).

일실되었으므로 목록에만 저록하였다. 또한 저자의 시문을 망라하기 위하여 鄭氏家傳은 물론, 『輿地勝覽』, 『高麗史』, 『國朝寶鑑』 등 관찬본, 『攷事撮要』와 같은 사찬본 유서를 참조하였으며, 다른 문집에 언급된 내용을 신고 佚文이 있음을 표시하였다. 李穡의 「淨土寺雙溪樓記」로부터의 추출 사실을 밝힌 것이 그 일례이다.

『삼봉집』은 자편고나 흥무 초본, 중간본, 속본 등에 연보가 없었으나, 정조 때의 개간본에서는 연보를 대신할 「事實」을 첨부하였다. 이것은 문집이 傳記的 자료와 관련 시문을 망라한 부록을 설정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테면 『동국이상국집』에는 조물한 長子 李灌을 대신하여 翱子가 된 차남 李涵이 1241년 12월에 작성한 강목 형태의 연보가 붙어 있다.³²⁾ 이함은 「年譜序」에서 연보 작성이 譜主의 행적을 기술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작품의 창작 연대를 명시하여 ‘詩文譜’의 기능을 더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³³⁾ 이후 이규보의 문집보다 80여년 뒤 1363년 간행된 이제현의 『익재난고』 초간본은 연보가 없지만, 1693(숙종 19) 중간본은 연보를 지니고 있다. 정도전의 『삼봉집』 재간본은 「사실」 66조 항을 부록으로 붙였다. 문집과 관련 인물의 시문 자료들을 抄出하거나 ‘通修’하는 방식으로 편집하였고, 출전을 명시하였다. 기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鄭氏世譜』보다는 다른 문헌들에서 자료를 취하고자 하였고, 자료가 미비할 때는 本集 『삼봉집』과 함께 通修하였다.

5. 한국 문집의 특질: 完整性 지향과 의도적 刪節

근대 이전 한국의 문집은 完整性을 지향하고 저술의 망라를 이상적으로 생각하였지만, 편찬 의도에 따라 시문을 取捨하려는 경향도 지니고 있어서, 간행된

32) 金乾坤, 2001 「高麗時代年譜研究(1)」 『藏書閣』 제5집.

33) 李涵, 「年譜序」 “嗣子涵既撰家公前後文集, 因據公之手草家狀, 又成年譜. 涵觀古人文集年譜, 各於年中, 備詳所著本末端由, 以相參考, 大抵古人詩集, 未必皆著所述年月矣. 未知據何本而載之之詳耶? 今家公文集, 其不標年月者亦多, 故不得各隨年載, 一一標之, 但存十之一二耳. 然公之著作, 雖一年一月, 寧有所闕者耶?”

문집은 결락의 부분이 적지 않았다. 그것은 衆體具備와 顯示意圖의 모순, 양식 분류에 따른 정보 집성의 한계, 변격 한문 문장의 처리 등과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이다.

앞서 보았듯이 권근이 정도전의 시문을 평가한 관점은 도통 속에서의 위상(闢異端 포함), 衆體의 구비, 經國文章, 華國文章 등 네 가지로 수렴한다. 조선시대에는 문인-관료의 문집을 편찬할 때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시문을 수록하지 않거나 刪節하는 예가 많았다.³⁴⁾

- ⓐ 불교 관련 문자를 극력 배제하였다.
- ⓑ 가능한 한 모든 시문 양식을 안배하고, 장르 및 양식별로 분류하였다. 이를테면 辭賦를 반드시 제작하고 채록하였다.
- ⓒ 국가의 경영과 관련된 ‘大文字’들을 적극 수록하였다. 이를테면 章疏의 문장이 없으면 擬作이라도 하여 수록하였다. 이에 비해, 이두식 변격한문(조선식한문)의 문장은 산절하거나 개찬하여 수록하였다.

1) 衆體具備와 顯示意圖의 모순

정도전이 자신의 시문을 自編한 것은 자신이 시문의 衆體에 능함을 과시하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권근의 「삼봉집서」는 정도전의 위상을 權溥, 李齊賢, 李穀·李仁復, 白文寶, 李穡, 鄭夢周·李崇仁·鄭道傳·朴尚衷·尹紹宗에 이르는 조선 성리학의 道統 속에 위치시킨 후, 정도전의 시문이 衆體를 구비하였고 經國과 華國의 도구임을 역설하였다. 또 1465년(세조 11) 정도전의 증손 정문형은 『삼봉집』을 간행하면서 홍무초본 『불씨잡변』 이외에 『경제문감』·『조선경국전』을 합각함으로써 정도전의 經國文章과 經世之志를 드러내고, 「心氣理」·「心問天答」을 합간함으로써 정도전이 조선 성리학의 학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표창하였다. 중간 혹은 재간본 편찬자들도 정도전의 불교 관련 문자를 극력 배제하였다. 하지만 정도전은 1385년(우왕 11) 成均館祭酒 知製敎로 있을 때 「彌智山舍那寺石鐘銘并序」을 작성하였다. 이 비는 정도전이 지은 글을 승려 誼聞이 해서

34) 심경호, 2014 「조선 문집 간행의 경위와 편찬 체제에 관한 일고찰: 정도전 『삼봉집』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제62호, 119-152면.

로 쓰고 薫谷과 明昊가 새겨 국사의 입적 4년 후 1386년 10월에 세웠다. 篆額은 ‘圓證國師石鐘銘’이며, 圓證國師는 곧 고려 말 太古普愚(1301~1382)이다.³⁵⁾ 정도전은 종명에서 원중국사가 원나라에 들어가 임제종의 법을 전수받은 사실, 공민왕이 국사로 책봉하고 국사의 고향을 군으로 승격시킨 사실, 고을 사람들이 국사를 기리는 뜻에서 석종 비를 건립한 사실을 차례로 적었다. 정도전의 종명을 새긴 비석의 陰記는 版圖判書 李中實, 判司宰寺事 李隣, 三司右尹 金子贊, 司僕世 李灝, 仁州事 申天用, 楊根郡事 吳成式을 비롯한 조력자들의 직책과 명단으로 채워져 있다.

또한 조선후기의 문집 가운데는 功令文과 課作을 수록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 있다. 그 배제나 포함은 작가 및 편찬자의 의식이 질게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공령문은 ‘程文俗套’라고 천시되어 왔지만, 조선후기에는 이 과문이 불우한 문사, 奇絕한 문학세계를 추구하는 빈한한 문사들의 문학세계를 담는 양식으로 애호되었다. 그 문학사적 의의를 연구하는 일도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공령문은 발신하지 못한 문사들을 광범한 창작층으로 지니고 있었으며, 빈한한 선비들 사이에서 주요한 문학양식으로 인식되었다.

2) 양식분류에 따른 정보집성의 한계

『삼봉집』의 편찬간행자들은 정도전이 시문의 衆體에 능하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 시와 문을 따로 수록하고 각각 문체양식별로 구분하여 두었다. 따라서 연차별로 정도전이 어떤 시와 문을 지었는지 잘 알 수 없고, 어떤 시문은 지은 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일부 시문에는 후대 사람이 지은 해를 살펴서 주석을 붙여둔 것이 있으나, 그 가운데는 믿고 따르기 어려운 것도 있다.

이를테면 「送靖安君赴京師詩序」은 『삼봉집』에 甲戌作으로 되어 있다. 고증 결과 1394년(조선 태조 3, 갑술) 6월 7일(을해)의 작으로 판명되었다.³⁶⁾ 명나라 태

35) 太古寺에는 1385년에 세운 원중국사탑비가 별도로 있는데, 비문은 李穡이 지었다.

36) 鄭道傳, 『三峰集』 권3, 序 「送靖安君赴京師詩序」(甲戌) “恭惟殿下畏天事大, 克謹侯度, 罔或有違, 天子嘉之, 命親男以朝, 而靖安君寔行, 乃以六月乙亥, 殿下率群臣拜表于壽昌宮, 儀仗分左右, 樂部導前, 送至于宣義門外, 都人父老填溢街巷, 瞻望咨嗟, 皆曰, 吾君一遣子而萬民賴以安, 盡歌之, 俾後子孫無忘也? 相與歌曰: 天子之明兮, 吾君之誠兮, 之子之行兮, 爲斯民開太平兮, 門下侍郎成石璘繼其歌而賦

조 주원장은 조선에서 보낸 표전문을 문제 삼아 조선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다가, 이 해에 국왕의 친아들을 보내라고 협박하였다. 태조는 李芳遠을 적임자라 여겨, 表를 지참한 趙胖과 箋을 지참한 南在와 함께 명나라에 가게 하였다. 이방원은 명나라 태조를 두세 차례 만나 외교 협안을 해결하고 온다. 당시 정안군을 개경의 선의문 밖까지 전송 나온 부로들이 노래(곧 찬송류의 악장)를 짓자 성석린이 그것에 이어 시를 지은 후, 趙浚 이하 당대의 고관이 모두 分韻하여 시를 지었다고 하였다. 정도전의 「送靖安君赴京師詩序」가 있다.³⁷⁾ 성석린이 지었다는 시는 칠언절구로,³⁸⁾ 당시 문신들은 28자를 제비 뽑아 각각 지은 시들은 여러 문헌에 일부가 훌어져서 전한다. 이를테면 첫 글자 ‘知’를 가지고 지은 시는 李茂芳의 「靖安君餞詩得知字」로, 『동문선』에 전한다. 上平聲 四支韻의 장편 오언고시이다.³⁹⁾ 『삼봉집』은 이러한 시들을 망라하지 않아서 정안군 전별연의 실상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3) 조선식한문의 처리

조선시대의 문집은 경국문장은 적극 수록하였다. 이를테면 章疏의 문장이 없으면 擬作이라도 하여 수록하였다. 이에 비해, 조선식한문은 刪節하거나 改撰하여 수록하였다. 『삼봉집』에는 이두식 한문의 예가 하나도 없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한문산문은 정격의 한문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두를 섞은 한문이나 우리식 어휘와 어법을 함께 사용하는 변격한문을 사용하였다. 조선초의 문인들은 이두를 별도로 학습하였다. 『彝尊錄』에 보면, 金宗直의 부친 金淑滋는 이두를 배워 吏事에도 우월하였다고 한다.⁴⁰⁾ 서적을 인쇄하면서 이두

之，侍中平壤伯已下諸大夫皆和焉，分韻成詩凡二十八篇，以序文屬道傳，辭不敏不獲，曰：靖安君天性聰敏，學問夙成，今茲內承君父之命，上觀天子之朝，立玉墀方寸地，以近穆穆之光，敷奏詳明，獲奉吾君錫命而還，在家爲孝子，在國爲忠臣，是則靖安君之所自期，而諸大夫亦以是望之也。若其時當炎暑，雨澑相仍，跋涉山川，行役間關，皆有感於中者，而靖安君不以是介予懷，吁賢矣哉！”

37) 심경호 역, 2013 『삼봉집』, 한국고전번역원.

38) “知子知臣睿鑑明，畏天誠意爲生成。皆言萬里朝鮮慶，在此炎霖跋涉行”(沈慶昊, 2013 「高麗末 朝鮮初 文人：知識層의 分韻에 대하여」『국문학연구』 27, 7-33면).

39) 李茂芳, 『동문선』 권5, 五言古詩[운자: 夷, 墇, 濕, 時, 思, 規, 脂, 岐, 知, 詩, 斯, 基, 儀] 「靖安君餞詩得知字」.

문의 공문서를 함께 판각한 예도 있다. 이것은 원나라 서적 간행의 예와 유사하다. 곧 『牛馬羊豬染疫病治療方』이 그 예이다. 이 책은 1541년(중종 36) 직후 초간된 후 1541년 11월 교서관 인출의 활자본과 각도 복각의 목판본이 나왔다.⁴¹⁾ 1541년 교서관 인출 활자본은 1578년(선조 11) 정월에도 내사되어, 부호군 李仲樸에게 하사된 활자본이 고려대 晚松文庫에 있다.⁴²⁾ 1542년(중종 37) 평안도관찰사 尚震이 병조의 계목에 따라 우마치료방을 이두와 언문으로 만들어 배포하게 해달라는 書狀을 올리고 左承旨 權應昌이 국왕의 윤허를 알리는 글이 권두에 인쇄되어 있다.

이두어와 이두식 변격한문은 일상의 언어문자 생활에서 널리 사용되었지만, 문집의 편찬자들은 그러한 글을 變改하거나 아예 삭제는 일이 많았다. 이를테면 李滉의 문집에 수록된 51편의 「乞致仕狀」 가운데 33편에는 이두가 하나 이상 남아 있으나 18편에는 이두가 삭제되어 있다. 장계 51편 가운데 5편은 『명종실록』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실록』에서는 이두를 제거하고 문장을 정통 한문에 가깝게 교정하여 두었다.⁴³⁾ 또 鄭經世(1563~1633)가 류성룡의 아들 柳袗에게 부친 서한을 보면, 故인의 문장이 이두가 아주 적어서 간간이 한두 곳만 제거하면 찬연히 문장을 이룬다고 하였지만,⁴⁴⁾ 李塽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류성룡의 狀啓와 公移에서 이두를 제거하려고 하여 承接의 곳에 다른 글자를 대신해 넣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면서 산절과 개작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⁴⁵⁾

40) 金宗直, 『佔畢齋集』「彝尊錄」下 ‘先公事業’ 第四。

41) 1636년(인조 14) 해주에서 崔鳴吉의 서문과跋문을 붙여 재간하였다.

42) 청구기호는 〈만송 貴 522〉이다. 여강출판사 편, 『한국과학기술사자료대제』에 영인·수록되어 있다(여강출판사 편, 1988 『牛馬羊豬染疫治療方』,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醫藥學篇 50, 驪江出版社, 245-282면).

43) 藤本幸夫, 1978 「朝鮮漢文—吏讀文からの昇華—」『語文』34, 大阪大學國文學研究室。

44) 鄭經世, 『愚伏集』 권11, 書「答柳季華」“遠地專人問訊，既荷盛意，又想新年學履增勝，甚慰懸鬱。吏讀刪節事，固料兩意必愜。承示又知先生意本欲如此，不勝喜幸。大槩先生文章，雖於公事場文字，與俗例不同，用吏讀處甚小，間不過句去一二處，而粲然成章。想而靜諸友之意，亦必以爲穩當耳。”

45) 鄭經世, 『愚伏集』 권10, 書「與李叔平」“先生文集，刪繁就約，非徒事理當然，又是先生本意，固無不可。至於文字語句，雖稍有未簡當處，不可一一刪節，刪節猶可，竄改尤未安。當初非不知此，而只緣狀啓公移中欲去吏讀，故於承接處，不免代以他字，蓋出於不得已也。即見雜記

조선시대의 여러 문집에서 狀啓나 公移 등 공용문자가 정격한문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은 산삭과 윤색을 거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도전의 『삼봉집』도, 經國文章과 華國文章에 해당하는 저술은 적극 수록하면서 변격한문으로 작성된 공용문자는 하나도 신지 않았다.

근대 이전의 시기에 문집을 편찬할 때 편찬자들은 저술을 망라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원래의 저술이 우연히 일실되기도 했다. 또 다른 사람의 글로 알려져서 문집에 수록되지 못한 예도 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前代의 『실록』을 편찬할 때 史草와 함께 文集 자료도 활용하였으므로, 『실록』 수록의 글이 문집에 누락된 예는 드물다. 또한 18세기 후반에 문집을 편찬할 때는 반드시 『國朝寶鑑』·『文苑編藏』·『承政院日記』·『備邊司詹錄』 등 관찬 문헌과 등록류를 검토하였고, 일제강점기에 문집을 편찬할 때는 영인본 『실록』을 쉽게 열람하였으므로 『실록』 수록의 글이 문집에 누락되는 예는 거의 없게 되었다. 조선 전기의 경우는 여전히 『실록』 수록의 글이 문집에 누락된 사례가 많았다.

이를테면 정도전은 1394년(태조 3) 2월 29일, 왕자들과 공신들이 사사로이 기르는 군사들을 회수하는 한편, 요동에서 명나라와 군사적으로 충돌할 것을 우려해 군사 제도를 개편하고자, 상제한 조목을 上書하였다. 특히 府兵과 侍衛의 編制를 개편하고 전투 부대는 하급 장교를 실질적 지휘관으로 삼도록 건의하였다. 또 1394년 4월 22일에는 정도전이 태조에게 매일 장상들을 불러 군국의 일을 의논하라고 上言하였다. 이 글은 정조 때 편찬한 현행 대구본에서도 누락되어 있다.

한편 정도전의 글이라고 판단되지만 『삼봉집』에 들어 있지 않은 글도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鄉藥濟生集成方序」는 『동문선』 권91에 권근이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金旼의 『海東文獻總錄』은 『鄉約濟生集成方』에 대해 해제하면서 정도전이 이 서문을 썼다고 밝혔다. 『동문선』 권103에서는 「鄉藥濟生集成方跋」(1399,

中有一兩處點改，亦有不必刪而刪處。鄙意欲依本文以存慎重之意，如何如何？大抵先生之文，平鋪委曲，惟取詞順意達，讀之如相對說好話。老兄之文，鍛鍊刻削，精簡矜莊，得之於子厚者爲多。兩家文章，氣象自不同，各全其真體可也。”

정종 원년 5월 상순)도 권근의 작이라고 실어 두었다. 아마도 이 책은 1398년 1차로 편집되어 6월 하순에 정도전이 서문을 썼으나 간행되지 못하다가, 이듬해 간행이 추진되어 그해 5월에 권근이跋문을 썼을 것이다.

6. 한국 문집의 학적 연구를 위한 제언: 결론을 대신하여

조선시대 문인의 삶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인의 문집을 활용해야 하지만, 문집이 남아 있지 않거나 불완전한 상태로 전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 가운데 정치적 이유로 문집이 훼판된 예가 많다. 대북의 李爾瞻, 영·정조 때의 洪啓禧 등은 국가적 출판에 간여한 일이 많으므로 출판물의 서발문을 모아도 그들의 사유방식이나 정치문화상의 이념을 더욱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문인의 문학활동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자료 취택의 범위를 개별 문집에만 한정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는 최근 안평대군 평전을 탈고하였는데, 『몽유도원도시축』의 記 이외에도 안평대군의 시문을 여럿 모을 수 있었다. 안평대군이 24세 되던 1442년에 작성한 「匪懈堂四十八詠」 시축 서문, 1451년에 지은 「武溪詩」 서문 및 5수, 안평대군의 「八家詩選序」, 두류산(지리산) 灵神寺 '迦葉像贊', 1448년 4월에 작성한 『묘법연화경』 발문, 1450년 3월 3일(정미) 월내 불사에 반대하는 신하들의 견해를 반박하는 상서, 1450년 7월 하순에 작성한 「再送嚴上座歸南序」 등이 그것이다.⁴⁶⁾ 佚文을 수집함으로써 안평대군의 시학 수준과 불교사상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고려와 조선의 문집은 사회적 토대라 볼 수 있는 물질적 기반과 독서층, 가문의 요구와 사회적 요구 등 여러 요인의 연관관계 속에서 편집되고 판각되고 유통되었다. 문집의 체제와 원 자료의 수집 방식에 관한 고찰은 물론, 行卷 · 轉寫本 · 간행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가 한문학 연구의 대상이 된다.

46) 심경호, 2015 「안평대군의 〈재송엄상좌귀남서〉 등 불교 관련 시문에 관해서」 『민족문화 연구』 제68호, 357-388면.

한국의 문집은完整性을 지향했지만 편찬 의도에 따라 시문을取捨하려는 경향도 지니고 있어서, 간행된 문집은 결락의 부분이 적지 않았으므로,輯佚을 필요로 한다. 또한 저술의 동기와 주제를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근본 자료가 되도록 각 시문의繫年化가 이루어져야 한다.⁴⁷⁾

이를테면 정조의『홍재전서』는 1·2차 정리 과정을 통해 정조의 각종 시문이나 책문, 경학條間 및 신하의應製와條對 등 원천 자료를刪節한 예가 많다. 따라서 정조의 시문과 책문, 경학 조문 등이 지닌 참 모습을 이해하고 그 역사적, 문화사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천 자료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 (a) 시문: 어제시에和韻·次韻한 예들을 조사·수집·정리하고, 정조의 어제시가 산생된 맥락을 재구한다.
- (b) 교서 및 대책문: 통용본『홍재전서』에 수록된 교서 및 책문이『정조실록』이나『일성록』 및 유관 작가의 문집 속에 실려 있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밝힌다. 또한 정조의 교서와 책문에 대한 신하의謝箋 및對策文을 조사·수집·정리하여 상호 연관성을 밝힌다.
- (c) 경서강의: 통용본御定條間이條對를 제출한 신하의 문집이나 별집에 수록된 내용과 비교하여 그異同을 밝힌다.條對의 경우는 원래의條對와 완전히 다르므로 그 실제 조대를 복원하고, 채택되지 않은 신하의 조대도 연계시킨다.
- (d) 정조의 전체 저술을繫年化하여, 정조의 문학적 통치와 시문 저술이 어떠한 연관 관계에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문집에 대한 학적 연구를 위해輯佚과繫年의 방법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1) 輯佚

문헌의 정본은整本, 일반定本(正本),輯佚定本(正本), 연관자료집성定本 등 네 가지 상이한 층위가 있다.整本이라고 하면 초간본이 불명할 경우異本들을 비교·대조하여 초간본의 내용을再構한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일반定本(正本)이라고 하면 이본들을 비교·대조하여 제3의 권위 있는 텍스트를 재구하

47) 심경호, 2013 「한국한문문집을 활용한 학문연구와 정본화 방법에 관한 일고찰」『민족문화』 제42호, 한국고전번역원, 287-336면.

는 것을 말한다. 定本의 경우, 이본들의 비교·대조는 물론 산일된 자료를 모아 輯佚의 작업까지 나간 집일 정본도 있을 수 있다. 청나라 고증학에서 한대 경학의 집일본을 만든 예가 이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앤솔로지 형식의 문헌이거나 역사기록물은 연관자료를 집성하거나 연계시키는 정본을 구상할 수 있다.

① 整本과 定本

- ⓐ 整本(초간본의 재구): 실전 문헌의 재구 혹은 실전 초간본의 재구. 이를테면 정도전 등 조선 초 편찬 『고려사』의 재구, 일연 초편 『삼국유사』의 재구 등이 필요함.
- ⓑ 一般 定本(正本): 이본들의 비교·대조를 통한 권위 있는 텍스트의 구성. 이를테면 다산학술재단 『정본 여유당전서』, 심경호 역, 『서포만필』 외, 심경호 등 주관 문학동네 한국고전문학대계본의 구상이 이에 속함.

② 輯佚과 集成

- ⓐ 輯佚 定本(正本): 기본의 저본만이 아니라 다른 문헌 혹은 금석문에 산재하는 일차자료를 수집하여 권위 있는 텍스트의 구성. 심경호, 『삼봉집』(한국고전번역원, 2013)의 경우, 『삼봉집』 미수록의 자료를 『조선왕조실록』, 금석문 자료, 『해동문헌총록』 빌체 자료 등을 통해 보완한 사례가 있음.
- ⓑ 연관자료 연계 혹은 集成 定本: 앤솔로지 형식의 문헌이거나 역사기록물에 연관 자료를 집성하거나 연계시킨 구성. 시문 앤솔로지인 『동문선』에 수록된 각 시문을 문집의 현전 여부를 조사하여 연계시키는 일, 혹은 역사기록물인 『조선왕조실록』의 사료를 문집이나 기타 사료와 연계시키는 일. 일제 조선사편 수회 『조선사』는 『조선왕조실록』 사료의 일부를 문집 소재의 기사와 연계시키려고 시도하였으나, 현 통용본의 국역본은 이러한 작업을 시도하지 않았다.

2) 繫年

문집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문 및 기타 저술을 繫年化해야 한다. 필자는 2008년부터 신조선사본(연활자본) 『與猶堂全書』(1934~1938년 간행) 154권 76책에 수록된 시문집 부분(권1부터 권25)을 시집, 산문집, 잡찬집을 대상으로 표점과 교감을 담당하여, 2012년도 12월 다산학술재단 간행 『정본 여유당전서』의 ‘시문집’ 부분에 수록하면서, 시작품의 繫年化를 시도했고,⁴⁸⁾ 2013년에

48) 조성을, 2004 『여유당집의 문헌학적 연구: 詩律 및 雜文의 年代考證을 中心으로』(연세국

「다산 정약용 산문의 저술시기 고찰」을 발표한 바 있다.⁴⁹⁾ 이는 한 예에 불과하다. 위에서 말한 『홍재전서』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한국문집들은 저술의 계년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문집, 문체, 조선식 한문, 輯佚 繫年

투고일(2015. 11. 16), 심사시작일(2015. 11. 28), 심사완료일(2015. 12. 14)

학총서 44), 혜안; 심경호, 2007 「『여유당전서』 시문집 정본 편찬을 위한 기초연구: 詩篇의 繫年 방법을 중심으로」 『茶山學』 제11호, 다산학술문화재단, 355-395면; 심경호, 2012 『정본 여유당전서 시문집』 1-3, 다산학술재단.

49) 심경호, 2013 「다산 정약용 산문의 저술시기 고찰」 『다산학』 제23호, 다산학술문화재단, 41-84면.

참고문헌

- 金宗直, 『佔畢齋集』(한국문집총간 12), 1988.
- 徐有榘, 『鏤板考』(洪命熹 校訂), 京城: 大同出版社, 昭和 16(1941).
- 李奎報, 『東國李相國集』(한국문집총간 1~2), 1988.
- 李德壽, 『西堂私載』(한국문집총간 186), 1997.
- 李命培, 『茅溪先生文集』(한국문집총간속 58), 2008.
- 李時恒, 『和隱集』(한국문집총간속 57), 2008.
- 李楨國, 『尤園先生文集』(한국문집총간속 99), 2010.
- 李宗城, 『梧川先生集』(한국문집총간 214), 1998.
- 張 維, 『谿谷集』(한국문집총간 92), 1988.
- 鄭經世, 『愚伏集』(한국문집총간 68), 1988.
- 鄭道傳, 『三峰集』(한국문집총간 5), 1988.
- 正 祖, 『弘齋全書』(한국문집총간 261~267), 2001.
- 崔致遠, 『桂苑筆耕集』(한국문집총간 1), 1988.
- 許 穆, 『眉叟記言』(한국문집총간 98), 1988.
- 『高宗實錄』, 국사편찬위원회, 1970.
- 『舊唐書』, 中華書局, 1991.
-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동문선』, 민족문화추진회, 1968~1970.

〈Abstract〉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Munjip Editing and its Organization

Sim Kyung-ho *

A Munjip, a collection of literary works, includes not only author's life and the thought, but also the atmosphere of the times that the author belongs to. That is why we should treat them significantly not only in researching of the author's individual thought, career and literature, but also of politics, thoughts and the view of literature at that times.

There are various kinds of organization of Munjip. In most cases it divides the whole works into poetry and prose and lines up poetry in chronological order and classifies prose by the style of writing. There are of course some exceptional cases for certain reasons. And in many cases supplement was added, say a chronological list of author's life, related works of his fellows, and criticism of descendants etc.

The styles in Munjip changes according to the demands of the times and historical backgrounds. For example 15 pieces of Jesa in the 15 volume of *Gyewon-pilgyeong-jip* reveal the aspect of taoism of Tang dynasty. These works created new traditions of composing Jesa among literati in Song and Goryeo period. There are some cases that Munjip in Joseon period establishes separately the style of Sangryangmun(a writing for the ceremony of putting up the ridge beam). It was the result of influence from China on one hand, and of the change of domestic situation that the ceremony was prevalent for social cohesion under official recognition on the other.

Editors of Munjip aims to collect the author's whole works. However, not a few works are omitted as there's also a tendency to select certain works under a certain editorial intention. In most cases it is due to (a)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intention of collecting the whole works and of keeping a certain editorial intention (b) the limit

* Professor, Department of Classical Chinese, Korea University.

of information caused by classification of style (c) the question of Korean style Hammun. There are also lots of cases that Munjip doesn't remain or remain incomplete because of political reasons. We need to collect the related literature and to establish open text with chronological order.

Key Words : Munjip(a collection of literary works), Style, Korean style Hammun, Collecting the related literature, Chronology of works